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분석

Needs for the Design of Residential Unit in the Elderly Housing

박희진^{*} / Pak, Hee-Jin

양세화^{**} / Yang, Se-Hwa

오찬옥^{***} / Oh, Chan-Oh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sign guidelines of residential unit for the elderly by investigating their needs and pre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to develop the alternative elderly housing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Korean culture. To perform an empirical analysis, the existing data collected in 2000 for the study of silver industry in Ulsan were used. The subjects were 292 elderly aged 65 and over living in Ulsan.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age, and Chi-squared test with cross-tabulations.

About 70% of the elderly respondents preferred more than 49.5m²(15-pyung) for the size of residential unit and about 50% of them wanted to have bedroom, bathroom, kitchen, and living room in the unit. Most elderly (72%) did not prefer to select interior finishes for their units by themselves. Surprisingly, the elderly did not want to bring their own furniture when relocating to the elderly housing, which was somewhat different result from previous stud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unit size and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living with or without spouse. Also, income and health status were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which made differences in preferred space composition.

키워드 : 노인주거, 단위주거, 시설주거

1. 서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또한 고령화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됨에 따라,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주거를 위한 대안은 우리나라의 노인 특성에 맞아야 하며 각자의 요구에 맞게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즉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노인주거 대안도 어느 한 가지 유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에 의한 고유의 주거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서구사회의 모방이 아닌,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에 맞는 노인주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주거여건과 주거문화를 고려하면 노인을 위한 주거 대안은 노인시설의 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노인시설주거는 노인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와는 다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노인시설주거가 계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어진 대부분의 노인시설의 경우, 단위주거가 침실과 욕실로만 이루어져 있고 부엌, 식당, 거실 등의 공간은 공동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러한 형태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형태인지, 단위주거의 내부 마감재와 가구 등은 어떻게 제공해주기를 원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노인주거 대안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위주거보다는 주거형태, 입지조건,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며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및 이를 노인의 특성과 관련지어 규명한

^{*} 정회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전공, 부교수

^{**} 정회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전공, 교수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부교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노인들의 요구를 직접 조사하고자 한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인시설의 단위주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단위주거 계획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주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고찰

노인주거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에 대한 요구나 선호를 조사한 미래지향적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며, 60세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 또한 앞으로 제공될 노인시설주거의 단위주거 계획을 위한 연구이므로 중년층이 갖고 있는 노인주거에 대한 선호와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전반부에서는 노인주거 및 노인시설주거의 단위주거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정리·제시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노인주거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많은 중·장년의 예비노인들이 자녀출가 후 부부나 혼자 살겠으며, 노인주거전용시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노인전용주거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¹⁾, 앞으로 노인시설주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시설 단위주거의 평균 면적은 독신의 경우 25.23㎡(7.6평), 부부노인의 경우 52.11㎡(15.8평)을 계획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와 생활양식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서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넓은 계획기준을 갖고 있다²⁾. 실제 예를 보면, 우리나라의 유료양로시설인 유당마을(수원소재)의 경우 1인실 6.2평, 2인실 8.1평, 2인 특실 12.4평으로 되어 있으며, 충효의 집(수원소재 유료 요양시설)은 1인실 6.2평, 1인 특실 9평, 2인실 9평으로 되어 있다.

한편 미래노인계층이 선호하는 주택규모는 평균 23.93평이며 16-20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³⁾. 그러나 주택규모에 대한 요구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배우자 유무에 의한 노년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하면서 배우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31-35평 사이를 원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고 배

우자없이 혼자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11-20평을 원하였다⁴⁾. 또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은영(1997)의 연구에서는 16-25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형옥과 지은영(1999)의 연구에서는 24.79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주택공사(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1인실의 경우는 15-20평정도, 부부인 경우는 18-27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시설주거의 단위주거 공간구성의 경우, 노인시설주거의 개별 단위주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은 침실과 욕실, 그리고 부엌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요구는 외국의 경우도 유사하여 영국이나 미국의 노인학자들은 한결같이 방의 크기가 작아도 작은 부엌,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주거를 선호하였다(임철우·윤중숙, 1993). 또한 미래노인계층은 방수는 작더라도 방의 크기는 크거나 또는 방의 크기는 작더라도 욕실, 거실, 부엌은 커야 한다는 요구를 보였다⁶⁾.

단위주거 내 가구의 경우 노인 거주자로 하여금 가구와 가구배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배력과 통제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일생동안 지녀 온 가구 및 개인 소유물은 노인시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친근감을 주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임철우·윤중숙, 1993).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시설의 가구는 예전에 쓰던 가구와 정확히 똑같은 필요는 없고 다만 비슷하다고 지각할 수 있게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⁷⁾.

노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해 온 물건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가지는 특성이 있어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인시설에 입주하기 전에 사용하던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수납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The AIA Foundation, 1985).

한편 노인주거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수입, 건강상태, 배우자의 동거상태, 주택유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시설주거에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젊은 연령층,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의 여성, 자녀수가 적은 노인, 현재 아파트 거주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이 많았으며,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개방적, 적극적, 독립적인 여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⁸⁾.

오찬욱(1992)은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는 노년기의 상황

1)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특수수요계층의 주거선호에 대응하는 주택 건설 및 공급방안 연구(II), 1995, pp.55-57

2) 박근형·양우현,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 1996, p.19

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전계서, p.61

4) 오찬욱,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2, p.74

5) 오찬욱, 상계서, p.76

6)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전계서, p.107

7) Zavotka, S. L., Teaford, M. H., The design of shared social spaces in assisted living residence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Interior Design, 23(2), 1997, p.4

8) 대한주택공사, 전계서, p.54

즉 배우자 유무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주택평수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건강한 상황에서 배우자없이 혼자 거주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를수록 적은 평수의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및 배우자의 존재여부에 따라 도시 여성노인의 노후 주택규모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소득수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평 이하의 주택을,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6-20평의 주택을 선호하였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15평 이하의 주택을, 중학교 졸업인 경우는 16-20평의 주택을 선호하였으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15평 이하의 주택을 선호하였으나 배우자 있을 경우는 26-30평의 주택을 선호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울산지역 노인의 의·식·주생활 실태 조사-노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양세화, 박희진 외 4인, 2000)」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다. 원자료는 울산시의 노인회관과 문화센터, 보건소, 병원에서 55세 이상의 예비 노인과 노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과 자기기입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에는 울산 지역의 노인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정보인 울산시 거주 노인들의 생활실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생활 실태와 의복구매 성향, 식습관과 식행동, 건강보조 식품과 선호 음식의 촉감, 주거의식과 선호, 시설주거에 대한 선호 특성, 그리고 노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제반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자료는 292부이다. 원자료는 울산시의 평균 연령이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의 노인 463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나 보다 현실감이 반영된 정확한 응답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65세 이상 노인 292명을 다시 추출하여 이들의 응답만을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시설에 관한 문항 중 주거유형이나 위치, 제공 서비스, 커뮤니티 구성 등과 관련된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단위주거에 관련된 5개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호하는 평수, 선호하는 공간구성, 실내 마감재 선택(입주 시 내부 벽지 색상이나 바닥재는 내가 직접 선택하기를 원한다), 가구 사용(입주 시 제공되는 새 가구보다 지금까지 써온 내 가구를 가져가기를 원한다), 수납공간 확보(비용을 내더라도 내 방에 붙박이장이나 기타 수납장을 설치하

는 것이 좋다)의 5개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명명척도(선호 평수와 선호 공간구성)와 리커트 척도(실내 마감재 선택, 가구 사용, 수납공간 확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리커트 척도는 응답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3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과 의견일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명변수인 노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 한달 용돈, 건강상태, 현 주거유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으로 처리하였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표 1>은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다. 조사대상 노인 292명 중 약 4분의 3 정도가 여자였다. 연령 분포는 70대 노인이 49.3%, 60대 후반 노인이 40.1%였으며, 배우자와의 동거상태는 배우자가 생존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동거) 비율이 40%,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는(비동거) 비율이 60%로 비동거의 비율이 높았다. 노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41.4%로 가장 많았고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도 34.6%를 차지하였다. 한달 동안의 평균 용돈으로는 10만원 미만을 쓰는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상을 쓴다고 답한 경우는 10%에 약간 못 미쳤으며, 10-20만원 미만이 34.8%, 20-30만원 미만이 12.1%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약 64%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n=292

일반적특성		빈도(%)
성별	남자	79 (27.1)
	여자	213 (72.9)
연령	65-69세	117 (40.1)
	70-74세	87 (29.8)
	75-79세	57 (19.5)
	80-84세	27 (9.2)
	85세 이상	4 (1.4)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비동거	174 (60.0)
	동거	116 (40.0)
교육정도	무학	101 (34.6)
	초등학교	121 (41.4)
	중학교	46 (15.8)
	고등학교 이상	24 (8.2)
한달용돈	10만원 미만	126 (43.4)
	10-20만원 미만	101 (34.8)
	20-30만원 미만	35 (12.1)
	30만원 이상	28 (9.7)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다.	104 (35.7)
	건강하다.	187 (64.3)
주거유형	단독주택	131 (45.0)
	아파트	135 (46.4)
	기타	25 (8.6)

9) 홍형욱·지은영, 도시여성노인의 주거환경 선호,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5호, 1999, p.131

하다고 답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각각 45%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4.2.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표 2>는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경향을 보여준다. 노인시설 내의 사적 생활공간인 단위주거의 규모에 대해 20평 이상을 희망 평균수로 대답한 비율이 36.6%, 그리고 15-20평 미만이 32%로 조사대상의 약 70%가 15평 이상의 규모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평 미만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하였다. 이는 박근형과 양우현(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혼자 거주할 때와 부부가 거주할 때에 따라 선호하는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혼자 거주할 경우 10-14평을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5-19평이 많았으며, 부부인 경우 20-24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연구(1995)에서는 16-20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수현(1999)의 연구에서는 16-25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주거의 공간 구성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노인의 절반 가량이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이 모두 갖추어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시설주거에 입주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보통 주거와 같기를 바라는 경향을 시사하며, 이는 선행연구(김은주, 1991; 임철우·윤종숙, 1993; 허병이, 1997)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 다음

<표 2>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n=292¹⁾

구분	빈도(%)	
선호하는 단위주거의 규모 (선호 평수)	10평 미만	26 (9.2)
	10평-15평 미만	63 (22.2)
	15평-20평 미만	91 (32.0)
	20평 이상	104 (36.6)
	계	284 (100.0)
선호하는 공간구성 (선호 공간구성)	침실만	13 (4.5)
	침실+화장실	54 (18.5)
	침실+화장실+부엌	59 (20.2)
	침실+거실	15 (5.1)
	침실+부엌	6 (2.1)
	침실+화장실+부엌+거실	145 (49.7)
계	292 (100.0)	
입주 시 내부 벽지 색상이나 바닥재는 내가 직접 선택하기를 원한다(실내 마감재 선택)	그렇지 않다.	101 (35.1)
	그저 그렇다.	105 (36.5)
	그렇다.	82 (28.5)
	계	288 (100.0)
입주 시 제공되는 새 가구보다 지금까지 써온 내 가구를 가져 가기를 원한다(가구 사용)	그렇지 않다.	144 (50.0)
	그저 그렇다.	74 (25.7)
	그렇다.	70 (24.3)
	계	288 (100.0)
비용을 내더라도 내 방에 붙박 이장이나 기타 수납장을 설치 하는 것이 좋다(수납공간 확보)	그렇지 않다.	109 (38.0)
	그저 그렇다.	90 (31.4)
	그렇다.	88 (30.7)
	계	288 (100.0)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으로는 거실을 제외한 침실과 화장실, 부엌으로 구성되거나 (20.2%), 침실과 화장실만으로 구성(18.5%)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주거를 침실로만 또는 침실과 거실 또는 침실과 부엌만으로 구성되는 형태에 대하여는 선호가 매우 낮았다. 특히 침실과 부엌 만으로의 구성은 가장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 특성상 화장실 사용이 빈번해지게 되어 화장실이 중요한 단위주거의 공간구성 요소로 다루어져야 하나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조사대상 노인들이 단위주거의 실내 마감재 선택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29%였으며,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35.1%,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6.5%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노인대상 연구에서 나타난 특성인 적극적으로 지 않고 순응하며 사는 삶의 태도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단위주거에서 사용하게 될 가구에 대한 응답은 흥미롭다. '입주 시 제공되는 새 가구보다 지금까지 써온 내 가구를 가져가기를 원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 노인의 절반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희망한다고 답한 비율은 4분의 1(24.3%)밖에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노인주거를 다룬 국내외의 선행 연구(김혜정, 2000; Valins, 1988)들은 노인들이 시설주거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추억이 담긴 소장 가구나 장식품 등에 대해 큰 애착을 보이고 이를 시설주거에서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다른 결과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온 것은 이에 대한 유사 연구가 국내에서 행해진 바가 거의 없어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열망과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가구의 노후화와 기존의 가구가 실내 마감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실내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위주거 내에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내더라도 내 방에 붙박이장이나 기타 수납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7%였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다소 높은 38%,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고 답해 실내 마감재 선택이나 가구사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요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와 노인 특성간의 관계

노인시설에서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위주거의 5개 측면(선호 평수, 선호 공간구성, 실내 마감재 선택, 가구 사용, 수납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와 성별, 연령,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 한달 용돈, 건강상태, 현 주거유형의 7개 노인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문항은 모두 명명척도(선호 평수, 선

호 공간구성)와 서열척도(실내 마감재 선택, 가구 사용, 수납공간 확보)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특성과의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chi-square검증을 하였으며, 검증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결과만 표로 제시하였다.

(1) 선호 평수 및 선호 공간구성과 노인 특성간의 관계

선호 평수와 노인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 그리고 한달 용돈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 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비동거노인의 경우 15-20평 미만의 규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4%), 20평 이상 규모에 대한 선호도 이와 비슷한 비율(31.8%)을 보였다. 한편 배우자와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20평 이상의 규모를 희망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15-20평 미만의 규모도 약 32%의 응답자가 선호하였다. 전체 노인의 약 68.6%가 15평 이상의 단위주거를 희망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노인(76%)이 그렇지 않은 노인(64%)보다 비교적 큰 평수의 단위주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0평 미만의 소형 규모를 원하는 비율은 배우자와의 동거 상태에 따라 약 4배 정도의 차이

희망 평수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경제력이 있는 노인일수록 노인시설의 단위주거가 넓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달 용돈이 20만원 이상인 노인의 62.3%가 20평 이상의 규모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인 노인(66%)과 10-20만원 미만의 노인(54%)은 10-20평 미만의 평수에서 높은 선호를 보였고 20평 이상에서는 각각 27%와 34%의 비교적 낮은 선호를 보였다. 이는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적정한 노후생활주택의 규모가 커진다고 한 홍형옥과 지은영(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수준과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면서 생활환경의 차이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동거상태는 공간을 사용하는 거주인 수와 관계된 것으로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에 26-30평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단독 거주 시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 15평 이하의 규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선호하는 규모는 배우자의 동거상태가 중요한 규모산정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는 선호 공간구성과 노인 특성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노인 특성 7개 중 희망하는 단위주거의 공간구성 방

<표 3> 노인특성별 선호 평수의 교차분석

n=292¹⁾

변수	구분	선호평수					x ²
		10평 미만	10-15평 미만	15-20평 미만	20평 이상	계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비동거	22 (12.9)	39 (22.9)	55 (32.4)	54 (31.8)	170 (100.0)	9.263 [*]
	동거	4 (3.6)	23 (20.5)	36 (32.1)	49 (43.8)	112 (100.0)	
	계	26 (9.2)	62 (22.0)	91 (32.3)	103 (36.5)	282 (100.0)	
교육정도	무학	15 (15.2)	21 (21.2)	37 (37.4)	26 (26.3)	99 (100.0)	13.657 [*]
	초등학교	7 (6.0)	27 (23.3)	37 (31.9)	45 (38.8)	116 (100.0)	
	중학교 이상	4 (5.9)	14 (20.6)	17 (25.0)	33 (48.5)	68 (100.0)	
	계	26 (9.2)	63 (22.2)	91 (32.0)	104 (36.6)	284 (100.0)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9 (7.3)	35 (28.2)	47 (37.9)	33 (26.6)	124 (100.0)	27.233 ^{***}
	10-20만원 미만	11 (11.2)	20 (20.4)	34 (34.7)	33 (33.7)	98 (100.0)	
	20만원 이상	6 (9.8)	8 (13.1)	9 (14.8)	38 (62.3)	61 (100.0)	
	계	26 (9.2)	63 (22.3)	90 (31.8)	104 (36.7)	283 (100.0)	

*p<.05 ***p<.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를 보였다.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큰 규모의 단위주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15-20평 미만의 규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10평 미만의 작은 규모를 원하는 비율은 다른 학력의 노인에 비해서도 가장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20평 이상의 규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노인은 약 절반 정도가 20평 이상을 선호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달 용돈을 통해 알 수 있는 노인의 경제력은 단위주거의

법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한달 용돈과 건강상태의 2개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평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경제력은 희망하는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이 모두 갖추어진 구성을 가장 선호하긴 하였으나 한달 용돈 20만원 이상을 쓰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에게서 보다 높은 선호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공간구성은 10만원 미만의 용돈을 쓰는 노인은 침실과 화장실만으로 구성된 형태를, 이에 반해 10-20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상인 노인은 침실과 화장실과 부엌으로 구성된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노인특성별 선호 공간구성의 교차분석

n=292¹⁾

변수	구분	선호공간구성							x ²
		침실만	침실+화장실	침실+화장실+부엌	침실+거실	침실+부엌	침실+화장실+부엌+거실	계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6(4.8)	24(19.0)	20(15.9)	8(6.3)	6(4.8)	62(49.2)	126(100.0)	25.604**
	10-20만원 미만	4(4.0)	23(22.8)	28(27.7)	-	-	46(45.5)	101(100.0)	
	20만원 이상	3(4.8)	7(11.1)	11(17.5)	7(11.1)	-	35(55.6)	63(100.0)	
	계	13(4.5)	54(18.6)	59(20.3)	15(5.2)	6(2.1)	143(49.3)	290(100.0)	
건강상태	건강하지않다.	3(2.9)	29(27.9)	16(15.4)	1(1.0)	3(2.9)	52(50.0)	104(100.0)	16.153**
	건강하다.	9(4.8)	25(13.4)	43(23.0)	14(7.5)	3(1.6)	93(49.7)	187(100.0)	
	계	12(4.1)	54(20.3)	59(20.3)	15(5.2)	6(2.1)	145(49.8)	291(100.0)	

**p<.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 모든 공간이 갖추어진 형태 외에 침실과 화장실, 부엌이 갖추어진 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한 노인의 경우 침실, 화장실, 부엌의 구성 형태보다 침실과 화장실만으로 구성된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오찬옥(1992)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건강상태는 노인의 주거에 대한 선호 및 요구에 영향을 미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에서 특별한 변화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및 외로움 등의 문제로 주택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조, 이사 및 시설의 입주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상으로 보다 단순하며 필수적인 기능만 하는 주거환경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부엌공간은 식생활과 관련된 곳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비교적 용이하

므로 이에 대한 공간 요구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내 마감재 선택, 가구 사용, 수납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와 노인 특성간의 관계

<표 5>는 실내 마감재 선택, 가구 사용, 수납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와 노인의 7개 특성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노인의 교육정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단위주거의 실내 마감재 선택에 대한 요구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약 30%는 입주 시 단위주거의 마감재를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였으며, 무학인 경우는 이에 대한 요구가 약 23%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장 높은 비율은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의 비교적 낮은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그저 그렇다'에서 나타난 반면(44%와 41%), 중학교 졸업 이상의 노인은 '그렇지 않다'(약 51%)에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 노인특성별 실내 마감재 선택, 가구 사용, 수납공간 확보에 대한 선호의 교차분석

n=292¹⁾

변수	구분	실내 마감재 선택				x ²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계	
교육정도	무학	34 (33.7)	44 (43.6)	23 (22.8)	101 (100.0)	16.528**
	초등학교	33 (28.0)	48 (40.7)	37 (31.4)	118 (100.0)	
	중학교 이상	34 (50.5)	12 (17.6)	22 (32.4)	68 (100.0)	
	계	101 (35.2)	104 (36.2)	82 (28.6)	287 (100.0)	
건강상태	건강하지않다	40 (39.2)	43 (42.2)	19 (18.6)	102 (100.0)	7.687*
	건강하다	60 (32.4)	62 (33.5)	63 (34.1)	185 (100.0)	
	계	100 (34.8)	105 (36.6)	82 (28.6)	287 (100.0)	
변수	구분	가구 사용				x ²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계	
교육정도	무학	43 (42.6)	24 (23.8)	34 (33.7)	101 (100.0)	10.940*
	초등학교	69 (58.5)	27 (22.0)	23 (19.5)	118 (100.0)	
	중학교 이상	32 (47.1)	23 (33.8)	13 (19.1)	68 (100.0)	
	계	144 (50.2)	73 (25.4)	70 (24.4)	287 (100.0)	
변수	구분	수납공간 확보				x ²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계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비동거	54 (31.4)	60 (34.9)	58 (33.7)	172 (100.0)	8.630*
	동거	55 (48.7)	30 (26.5)	28 (24.8)	113 (100.0)	
	계	109 (38.2)	90 (31.6)	86 (30.2)	285 (100.0)	

* p<.05 **p<.01

1) 무응답 제외로 변인별 사례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건강한 노인(약 34%)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약 19%)에 비해 실내 마감재 선택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노인은 모든 범주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약 40%는 단위주거의 마감재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그저 그렇다'에 답한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약 81%정도가 이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거나 거의 없음을 나타내 건강상태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 준다. 이는 역시 건강상태에 따라 삶에 대한 적극성과 관심의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시설에서 제공하는 새 가구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쓰던 가구를 가지고 입주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비교적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이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로운 편으로 주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새로운 가구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와의 동거상태에 따라 단위주거 내의 수납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에 비해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이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았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노인시설의 단위주거 계획에서는 규모, 공간구성, 실내 마감재와 가구 제공 등의 측면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교육정도, 경제력(한 달 용돈) 등 노인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단위주거의 규모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시설의 단위주거 규모는 동일한 평수로 통일시키기보다는 10평에서 20평 정도의 소규모에서 20평 이상의 중간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여 노인들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절반 정도의 노인이 단위주거의 공간구성이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로 되기를 원하였으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력(한 달 용돈)에 따라 침실과 화장실, 침실과 화장실과 부엌, 침실과 거실, 또는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로 되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의 공간구성은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로 된 형태와, 침실과 화장실, 침실과 화장실과 부엌, 침실과 거실로 된 형태를 골고루 배분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의 교육정도과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시설의 단위주거 벽지의 색상이나 바닥재를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정도가 달랐다. 따라서 노인시설 내 단위주거의 벽지 색상이나 바닥재는 모두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몇 가지로 하여 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노인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단위주거의 가구들에 대한 반응은 반 정도가 자신이 쓰던 가구를 가져오기보다는 새로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으며, 자신의 방에도 불박이장이나 기타 수납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단위주거의 가구도 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가구는 처음부터 제공해 주고 일부는 자신의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시설주거 계획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시설의 단위주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노인시설 내 공동공간의 계획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노인시설주거는 집합주거의 형태로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동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계획도 노인들의 제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내 마감재 선택과 사용하던 가구사용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달리 마감재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구는 사용하던 것보다는 새 것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회 변화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급격히 변화할 노인들의 심리적·정서적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노인들에게 '만일 노인시설에 입소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의 연결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시설에 살고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제 경험에 의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요구가 조사된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울산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여 확대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수현, 우리나라 노인주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2. 김은주, 유료양로원의 주거단위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3. 김혜정, 고령화 사회의 은퇴주거단지 디자인, 경춘사, 서울, 2000
4.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특수수요계층의 주거 선호에 대응하는 주택건설 및 공급방안 연구(II), 1995
5. _____, 노인거주자를 위한 주택형 및 설계지침연구, 보고서, 1996

6. 박근형 · 양우현,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2(1), 1996. 1, pp.13-21
7. 양세화 외 5인, 울산지역 노인의 의식주생활 실태조사, 노인복지연구, 8호, 2000. 6, pp.121-148
8. 오찬욱,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2
9. 임철우 · 윤종숙, 노인을 위한 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도입-, 경춘사, 서울, 1993
10. _____, 실버+디자인, 대학서림, 서울, 1998
11. 지은영, 연령계층별 미래노인주거에 대한 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5(2), 1997, pp.297-308
12. 최정신, 대도시 중년층의 3대 동거주택의 주요구, 대한건축협회 논문집, 8(6), 1992, pp.87-97
13. 허병이, 고령화사회의 주거환경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3), 1997, pp.153-162
14. 홍형욱 · 지은영, 도시여성노인의 주거환경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7(5), 1999, pp.123-136
15. The AIA Foundation, Design for Aging: An Architect Guide, Washington, D.C.: The AIA Press, 1985
16. Valins, M., Housing for Elderly Peopl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8
17. Zavotka, S. L., Teaford, M. H., The Design of Shared Social Spaces in Assisted Living Residence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Interior Design, 23(2), 1997, pp.2-16

<접수 : 2002. 12. 26>